



문화기관에 여성편의시설 대폭 확충

앞으로 예술의 전당 등 공연장에서 여성들이 화장실 앞에 길게 줄 서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예술의 전당 공연장의 경우 내년까지 관람객 수요에 대응하여 총47개의 여성화장실을 확충, 남녀화장실 설치비율이 1대3으로 조정된다.

우리부 문화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 배종신 차관보) 여성문화 TF는 조직내의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문화부문 정책 내에서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을 고려한 실천 가능한 세부과제들을 발굴해 오던 가운데, 그 첫 번째 실천과제로 “문화기관내 여성 편의 시설 확충”을 선정, 문화인프라에서의 화장실 불평등 해소 및 관람객에 대한 교육서비스 강화를 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연장의 경우 관람객의 약70% 이상이 여성인 반면, 또 국립환경연구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1회 평균 화장실 사용시간은 남성 1분24초에 비해 약2배 이상 긴 3분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우리 사회·문화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여 실제 공연장의 화장실 수는 오히려 남성용이 60%이상을 차지, 수요자 특성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당연히 여성관람객들은 공연 전후나 짧은 휴식시간 도중 화장실에서 길게 늘어서 있는 줄행렬에 발을 동동 구르며 몸을 맡겨야 하는 형편이다. 아울러 육아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주부 관람객의 경우 공연장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관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우리부(여성문화TF)가 산하 7개 문화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남녀 화장실은 남자용 1개당 여자용 0.67개(변기기준)로 6:4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또는 수유)시설은 총7개기관 중 6개기관이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우선적으로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기관부터 여성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일차적으로 예술의 전당 같은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 여성화장실 비율을 1대3으로 조정하고, 기타 전시장 등의 문화공간은 1대2 비율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우리부는 여성화장실 확충이 시급한 공연장의 경우 우선 올해 안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남성용을 여성용으로 전환, 이용하게 하여 여성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하였다. 예술의 전당은 음악당 1층과 오페라하우스 1층 로비에 있는 남성 화장실 중 1개소를 여성용으로 전환함으로써 7개의 여성화장실을 확충하고, 정동극장의 경우에는 여성 관람객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획공연의 경우 남성용을 가변형으로 하여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동극장은 이번 달 중에 보육 프로그램 운영기로 하고, 현대미술관은 수유시설 추가 공사를 하기로 하는 등 보육 서비스 제공도 강화될 계획이다. 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등도 2004년 중에 수유 시설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는 국립중앙극장과

용산에 건립중인 중앙박물관도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 화장실 비율 확대와 기타 편의공간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우리부는 1단계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단체부터 여성화장실 비율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2단계로 지방문화회관 등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문화기반시설에도 여성화장실 설치비율 및 보육서비스 강화를 교부조건으로 하는 등 동 사업을 공공문화기관·인프라부터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문화예술기관 뿐 아니라 체육·청소년·관광시설로 확대하고, 일반 상업적 공연시설 등에도 여성화장실 설치비율을 현실적 수요에 적합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기사

2면

- 광고발전유공자에 정부포상 수여
- 문화산업과 지역균형발전 토론회 개최
- 2003년도 음란물치단 우수프로그램 선정

3면

- 게임산업의 투자수익 크게 높아져
- 인디레이블 육성으로 음악시장 다변화 진행
- 온라인 음악 불법 복제 및 불법 파일 공유 근절 조치 추진

4면

- 공연장 무대시설안전진단 운영점검 결과 및 시정 조치
- 한·불 영화 공동제작협정 추진
- DVD 산업활성화 위해 정부 지원 실시

5면

-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추진
- 아시아 최대 문화콘텐츠 국제전시회 “DICON2003” 개최
- 「우수여행상품」 선정 및 인증서 수여

6면

- 언론비판보도의 정책반영 현황/ 다음주 주요행사
- 금주의 정보공개



광고발전 유공자에 정부포상 수여

정부는 「2003 한국광고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광고산업 발전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한 광고유공자에 대해 국민훈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자는 오랜 기간 광고분야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광고의 질적 수준향상과 올바른 광고문화 창달 등 광고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광고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금년도 정부포상 대상자는 국민훈장

동백장 1명, 국민포장 2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4명, 문화관광부장관표창 10명 등 총 20명이다.

국민훈장 동백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광고의 통상적인 일회성 광고의 틀을 깨고 저명한 문화인사를 기용한 명사시리즈 캠페인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여 광고를 문화와 접목시킨 공로로 김용언(金容彦) 동서식품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국민포장은 신재환(申在煥) 제일기획 전무와 김영수(金英壽) LG전자 부사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 17명이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수여식은 지난 4일 오후 2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3 한국광고대회」에서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이 전수하였다.

문화산업과 지역균형발전 토론회 개최

우리부는 11월 4~5일 이틀간 서울교 육문화회관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전국 문화산업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220명,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관계자 25명 등 총 2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문화예술지원의 발굴 및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콘텐츠가 10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산업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워크숍은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의 경험을 주고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4일 워크숍에서는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격려사와 서울대 조동성 교수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의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한 특강, 그리고 송승환(방송인, 공연기획자), 김현철(가수)의 「한국 문화산업의 성공사례와 글로벌 전략」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관련 영상물 상영, 일렉 쿠키(여성 전자 현악단) 미니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한편, 지역문화산업발전 유공자 표창에서 이창동장관은 문화산업클러스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천시에 기관표창을, 춘천시와 3개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관계자 4명에게 개인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춘천시청 오명규, 대구디지털산업

진흥원 박재경, 제주식산산업진흥원 고영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박재용 이상 4명)이후 워크숍 참가자들은 각 10개 분임으로 나뉘어서 「지역대학의 육성과 산학협력방안, 지역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협력방안,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육성의 가능성과 한계, 지역문화자원과 지역문화산업의 연계방안, 향토문화자원의 산업화」를 주제로 자유토론을 거친 후, 다음날 5일 분임별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의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 등을 제시했다.

우리부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지역 문화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고, 향후 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3년도 음란물 차단 우수 프로그램 선정

우리부는 PC방에서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란물 차단 우수 프로그램” 3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음란물 차단 우수 프로그램은 인터넷정보의 켜지기(PC용), 플러스기술의 수호천사 세이프존, 가자아이의 아이세이프(서버용)이다.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참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음란물차단 우수 프로그램 심사위원회에서 음란사이트 차단율, 품질 안전성, 사후관리 등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PC방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운영

해야 한다. PC방 또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업그레이드를 소홀히 할 경우 미설치 한 것으로 간주해 ‘음반및게임물예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게임산업의 투자 수익 크게 높아져

우리부와 한솔창투 등 14개기관(개인 투자자 포함)이 출자하여 2000년 최초로 결성한 「한솔게임전문 제1호 창업 투자조합(총 150억원, 문화부 50억원 출자)」이 최근 투자실적 중간평가에서 총 14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5억원은 조합원들에게 중간 배당된다.

이런 '1호 투자조합'의 이익금은 주로 35억원을 게임산업 창업·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게임산업의 창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창업·투자 기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게임전문 투자조합은 1호(150억원, 문화부 50억원), 2호 및 3호(각 100억원, 문화부 각 25억원) 등 총 350억원 규모가 결성되어 있다.

인디레이블 육성으로 음악시장 다변화 진행

음악시장의 다변화와 창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인디레이블(독립제작사) 육성지원사업이 음악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올 상반기에 처음 동 사업을 추진, 74개업체 96개사업이 접수되어 29개 사업을 선정·지원한 바 있다. 음악업계의 추가사업 요구에 의해 2차로 실시한 인디레이블 육성 사업 공고 결과 총 69개사

81개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독립군만세'사의 Ares1집등 11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최근 음악산업은 불법음반복제 및 불법음악유통 등의 문제와 기본 인프라부족 그리고 특정장르에 편중된 음악콘텐츠로 인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부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음악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창작기반 다변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일부 대학가 주변의

라이브클럽과 인디밴드 등 비제도권 음악제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디레이블 육성 지원사업은 비제도권 음악제작사는 물론 현시장에서 음반제작에 부담을 갖고 있는 제도권 음악관계자들에게까지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동사업은 1개사업에 10백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계약시 60%·작품완료시 40%를 지급받게 된다.

온라인 음악 불법 복제 및 불법 파일 공유 근절 조치 강화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음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 및 불법파일공유 근절』조치가 강화된다.

음악산업은 그 동안 보아, 강타를 비롯한 대표적인 대중음악가수들을 통해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소리바다 등 P2P, 파일공유서비스 등 온라인상의 불법행위로 인해 음악 창작자와 제작자의 권리가 무단으로 침해받으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음악산업이 침체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우리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법음반 복제 및

파일 공유 근절이 관건이라고 보고,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www.daum.net), MSN메신저(www.msn.co.kr), 마이리슨닷컴(www.mylisten.com) 등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저작권법상의 위법성과 불법복제로 인한 음악산업의 피해를 알리며, 불법 복제 음반이 아닌 정품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홍보용 CD 1만매를 제작하여 전국의 콘서트 현장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음원 및 음반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운영중인 음악사이트에 대해 1차로 양성화를 유도하고, 양성화하지 않는 사이트는 온라인상의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법규제 등 적극적인 법적 제재를 통해 불법으로 운영중인 사이트를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음원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소년 이용불가 및 수입추천을 받지 않은 외국음반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와 함께 강력한 단속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공연장무대시설 안전진단」 운영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

앞으로 공연장의 무대시설의 공정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안전 진단을 위해 안전 진단과 해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설비(보수) 공사를 동일 기관이 담당할 수 없게 된다.

우리부는 「무대시설안전지원센터」 및 「국립극장」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로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 진단 실적, 진단의 적정성, 결과 조치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2003. 9~10월)을

수 있는 요소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일부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향후 안전진단시 유사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안전진단과 설비(보수)공사를 동일 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등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불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한·불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이 본격 추진된다.

동 협정은 한·불 영화공동제작 활성화 및 영화제작재원 루트 다양화, 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우리부는 지난 8월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불공동제작협정 체결 TF팀"을 구성하여 그 동안 영화계의 각종 의견을 토대로 협정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공동제작 협정은 주로 유럽 국가간

체결하고 있는 영상물 제작 관련 협정으로, 동 협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 영화는 자국 영화로 간주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협정 체결 후 제작국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제작비 조달 용이, 영화제작 기술 및 인력 교류, 양국 시장 확대 및 상호 수출 확대 등 다양한 이점을 갖게 된다.

특히 프랑스는 영화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공동

제작 협정 체결시 영화 분야 교류 및 우리 영화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협정 초안을 토대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의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전략 마련을 위해 11월 5일 영화진흥위원회 주최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부는 이를 시발점으로 본격적인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DVD 산업 활성화 위해 정부 지원 실시

DVD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

우리부는 2003 우수기획 DVD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우수기획 DVD 공모전은 고품질 영상, 입체적 음향뿐만 아니라 다국어 자막·더빙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 영상 등의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디지털 영상매체인 DVD가 최근 정체 일로에 있는 비디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동 분야의 공급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올해 우리부에서 처음 지원·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어린이/기획·교양(문화예술)/애니메이션/극영화·드라마의 총 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는 동 공모전에는 국산창작 영상물을 담은 DVD로서 상업용·비상업용이든 관계없이 출품할 수 있다.

동 공모전에서는 대상(문화관광부 장관상) 1편과 분야별 우수상 각 1편씩 총 5편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 작품은 구입 지원을 통해 국내외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및 문화홍보 관련 시설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작품접수는 11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이며, 12월초 시상할 계획이다.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추진

우리부는 11월7일(금), 전북 무주군 예체문화관에서 공공체육시설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시·도, 시·군·구, 시설관리공단 등)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활용도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향후 국민의 스포츠활동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다. 학계, 민간 컨설팅업체, 체육과학연구원, 서울 삼암월드컵 경기장 등 각계 각종의 전문가가 시설 및 경영개선 방향, 제도개선 방향, 우수시설의 운영사례

등을 발표한다.

앞으로 우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및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 최대의 문화콘텐츠 국제전시회 "DICON 2003" 개최

우리부는 11월13일(목)부터 3일간 COEX에서 모바일콘텐츠,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전시하는 '2003 문화콘텐츠 국제전시회(DICON2003)'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킬러콘텐츠로 주목받는 모바일콘텐츠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인터넷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망라하며, B2B

중심의 전문마켓으로 기업전시회, 국제컨퍼런스,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160여개 업체가 200부스 규모로 참가할 계획인 기업전시회는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6개국 국가관에서 40여개 해외업체들의 콘텐츠 전시가 이루어진다.

DICON 행사 첫날인 11월13일부터 양일간 펼쳐지는 국제 디지털컨퍼런스에서는

야후 부사장 존 말콤(John Marcom)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MTV 네트워크 부사장 토니 엘리슨(Tony Ellison)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 리더들과 글로벌 경영자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통신업체 리더인 SK 텔레콤의 가종현 상무이사, KTF의 박인수 상무이사, LG 텔레콤의 현준용 부장이 한국 모바일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시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우수여행상품」 선정 및 인증서 수여

「2003년 우수여행상품인증서」수여식이 11월6일(목) 문화관광부 권경상 관광국장, 정은식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 우수여행상품 선정여행사, 언론계, 학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센터에서 거행된다.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는 국·내외 관광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품질의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여행사의 우수한 여행상품개발 연구를 촉진하며, 우리나라 국내·외 여행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금년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시행기관과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시행기관을 공개 공모하고, 인증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3기관

(전문기관) 한국관광학회에서 실시하였다. 둘째, 관광수지개선과 인바운드 및 국내여행상품 개발권장의 정책적 차원에서 해외여행 상품 선정을 줄이고 외국인 국내상품과 국내 여행상품은 늘려서 선정하였다. 셋째, 인증심사의 투명성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상품 신청공고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공개하였다. 넷째, 인증상품에 대한 사후 평가관리 차원에서 소비자의 만족도 조사를 제3기관인 한국관광학회에서 실시하여 이를 통한 인증 여행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선정된 우수여행상품은 소비자들이 신뢰성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0개 우수여행상품은

신청한 총 503개 여행상품 중 상품의 독창성, 가격적정성, 건전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품으로, 향후 1년간 우수여행상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부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 우수여행상품을 주요 일간지 및 국내·외 전문지를 통해 홍보하고, 한글 및 외국어로 우수여행상품 모음집을 제작 배포하며,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홍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우리부는 선정된 우수여행상품이 계속적으로 품질유지가 되도록 소비자 불편신고 등 자체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상품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행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화한국, 문화시민

새로운 시대 문화가 함께 합니다

문화관광부 브리핑

제24호 2003년 11월 7일(금)

언론비판보도의 정책반영 현황 (9/1~10/31)

■ 문화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전산망 사업에 대형멀티플렉스의 참여 저조로 예산 낭비 우려(9/18, 매일)

☞ 2003년11월초 통합전산망 시범운영 후 12월 중 본격 운영

■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사전에서 600여개의 오류가 발견(9/19, 경향, 조선, 중앙, 국민)

☞ 표준국어대사전에 잘못 기재된 정보를 2003년 12월말까지 취합 정리 및 2004년 2월말까지 정오표 제작 배포(완전 개정판 발간: 2007년 10월 예정)

■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여행사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및 취소, 현지음선 강매, 위약금 미지급 등 여행객의 피해 증가(9/25, 조선)

☞ 소비자의 피해 줄이기 위해 2~3회 실시하던 여행업 지도점검을 수시 점검

으로 변경(2003년 4월 점검 실시)하고,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소비자 피해사례를 통보·게재하여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선택시 주의토록 홍보(관련기관 통보)

■ 국립박물관의 건립확대 관련 박물관 미등록 및 운영 부실 보도(10/6, 한국)

☞ 2004년도 지원대상인 속초시 박물관 등 32개소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2004년 1월 시작)시 현지조사 강화, 건립후 운영계획 중점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지원예산 관련 현재 국회 심의 중, 전시유물 확보 위해 2003년 11월말 '비지정문화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조선성리학의 세계" 출품 유물 중 진위 의혹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미반영(10/27, 중앙)

☞ 진위 의혹 작품에 대한 5명의 서지·서예 전문가들의 진위 여부 확인 필

(2003년10월30일 11월4일), 문제 작품에 대한 전시 배제 및 작품도록 내용 수정(2003년11월3일), 연대표기 오류 작품에 대한 설명카드 교체(2003년11월4일)

☞ 다음주 주요행사

· 런던 세계관광박람회 참가

-11/10~11/13, 런던

· 제41회 영화의 날 기념식

-11/10, 18:30, 하이아트호텔

· 2003 문화콘텐츠 국제전시회

-11/13~11/15, 코엑스 3층 대서양관

금주의 정보공개

「2004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추진 계획」 발표 등

■ 건전한 게임장 문화 조성 위한 협조 요청

우리부는 건전한 게임장 문화 조성을 위해 각 시·도(시·군·구 포함), 경찰청, 대검찰청, 영상물등급위원회, 유관협회 등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경품(상품권)제공 관련 위법행위 사항, 행운권 제공 관련 사항, PS2 게임물 영업 및 권장사항 등이다.

■ 「2004년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추진 계획」 발표

우리부는 각 지역의 독특한 전통예술회원을 상설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적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004년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부는 직접 체험하는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을 기본목표로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공연 추진, 상설프로그램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새로운 여행상품개발, 색다른 볼거리 제공, 체계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2003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 지원계획 수립·시행

우리부는 국민생활체육 향상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과 지방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03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을 확정·시행한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33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원, 마사회 특별적립금 13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보공개 자료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자료방'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